

Vol. 116

2023

모든이에게 사랑과 소망을

HANSEN

한센 1·2월호



더 나은 미래로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보다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Mapping a better future...
사단법인
한국한센총연합회
THE KOREAN FEDERATION of
HANSEN ASSOCIATIONS

(사)한국한센총연합회 소개

(사)한국한센총연합회는...

1969년 10월 13일 발족되어 한센인의 인권회복 및 권익보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여 한센인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불식시키고 한센인의 사회적 수용을 촉구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핵심가치

HARMONY
HOPE
HAPPINESS

한센가족과 국민 모두의 소통을 통한 **편견 해소**
한센가족의 사회통합과 재활에 대한 **소망 실현**
전 세계 한센가족의 인권과 **복지 증진**

★ 비전 ★

- 차별과 편견이 없는 행복사회 실현
- 한센사업의 역할 모델로 위상 제고
- 한센가족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 구축
- 한센사업 전문기관으로 역량 강화

★ 미션 ★

- 한센인의 보건 복지 증진
- 한센인의 권익 보호 강화
- 한센인의 사회 통합 지원
- 한센인의 인권 신장 확대



★ 사업목표 ★

- 한센인 관련 법, 제도 등의 개정 및 제정
- 한센인의 보건복지 등 삶의 질 향상
- 한센 관련 단체와 연대 강화
- 한센인(병) 인식 제고를 위한 대국민 교육 홍보
- 한센인 권익 증진
- 한센인 사회 통합 지원
- 미래지향적인 한센정책 수립
- 국제 교류 협력 확대
- 한센인피해사건 기념관 건립
- 한센 관련 정책을 통한 주도적 위상 제고



★ 사업소개 ★



★ 로고 ★



한센가족(hansen)을 상징하는 'h'로 한센가족과 국민 모두가 눈높이를 맞춰 소통으로 하나되고 대한민국 한센사업의 통합과 한센가족의 희망찬 미래와 행복 실현을 위한 열정을 형상화함

| 총연합회 공식 SNS 채널 |



인스타그램



유튜브



트위터



페이스북

CONTENTS

한센포커스

02 인사말

‘깁충’ 뛰어오르는 토끼처럼...

04 스페셜 리포트

한센 가족보상 청구 한·일 변호단 회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설맞이 이웃사랑
후원금 전달식

07 한센 리포트

김성수 정책자문위원과 함께
서울에너지공사 지정기탁사업
신년하례예배
한국·대만·말레이시아, 한센인(병) 연구 교수 방문
복지·인권·민원을 위한 소통
정기 감사 실시
고문단 회의
정기 이사회
정기 대의원총회
총연합회 2023년 주요 사업 소개
한센가족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보상청구 안내

한센 탐방

27 역사 속 인물

윌리엄 존 맥켄지

32 정착마을 풍경

영신마을

33 유관단체동정

한국한센복지협회

34 에버그린사회복지센터

한센 공감

36 소통하는 한센

세계 한센병의 날

40 함께하는 한센

파도인생_신재문(영락마을대표)

한센 이모저모

41 정보알리미

골다공증 진단과 치료
기분이 좋아지는 음식 6가지
기억력을 떨어뜨리는 음식 6가지
혈관건강을 지켜라
2023년 보건·복지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요즘이책

62 독자들의 공간

가로세로 낱말퀴즈
한센 원고 모집 공고
후원자가 되실 분을 찾습니다.



aT 설맞이 이웃사랑 나눔



한센 원고 모집 공고



제21권 제1호 통권 제116호 발행일 2023년 1·2 월호 발행 발행·편집인 이길용 발행처 사단법인 한국한센총연합회
주소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 457, 2층 전화 1566-2339 팩스 1566-2032 홈페이지 www.hansenkorea.org
이메일 hansen@hansenkorea.org 디자인&인쇄 지앤비커뮤니케이션즈 격월간 비매품
※ 「한센」은 일반회계(국고지원)의 지원으로 발간된 것입니다.



‘껍’,
충
뛰
어
오
르
는
토
끼
처
럼
:

사랑하는 한센 가족 및 후원자 여러분

2023년 계묘년(癸卯年) 검은 토끼의 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는 정치, 사회, 경제 등 대한민국의 모든 분야에서 다사다난한 사건들로 가득하고 유난히 어려웠던 해였습니다.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아무 탈 없이 지난 한 해의 여정을 달려올 수 있도록 보내주신 아낌없는 사랑과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올해의 계묘년은 우리 민족에게 행복과 풍요, 그리고 지혜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달나라에 토끼가 살고 있다고 상상했고 절구를 찼으며 풍요롭고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달이 뜨는 밤이면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소원을 달님에게 빌었습니다. 또, 별주부전에 나오는 토끼는 간을 빼앗길 위기에 처하지만 이를 극복하는 지혜로운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한센 가족들은 고령화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어려움과 질병으로 인한 고통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을 지혜롭고 현명하게 헤쳐 나가기 위해 달나라 토끼의 행복과 풍요를 꿈꾸며 별주부전 토끼처럼 지혜를 다해 어려움을 극복하겠습니다.

지난 1월 한센인 가족으로 삶을 살았던 청구인의 면담을 위해 한국과 일본 변호단 회의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부터 한센 가족들이 풍요롭고 따뜻한 명절을 위한 후원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올해 기업인이 뽑은 사자성어로 금석위개(金石爲開)가 선정됐습니다. ‘어떤 일이든 강한 의지로 정성을 다하면 쇠와 돌을 뚫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지난해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간을 보낸 한센 가족들이 올해에는 위기를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 어려움을 뚫고 나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현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총연합회도 발전과 한센 가족의 인권과 복지 증진을 위해 총연합회가 중심이 되어 우리 한센 가족 모두가 강한 의지와 정성을 모아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한센 가족 및 후원자 여러분

한센인들의 복지와 인권이 강물같이 흐르며,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나은 미래’, ‘더 아름다운 세상’을 꿈꿀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하나 되어 함께 나아가길 희망합니다.

지금껏 우리는 차별, 편견, 소외, 낙인 속에 살아온 소수자로서의 아픔을 이겨내고 어렵고 힘들었던 지난날을 돌아보며 치열하게 보낸 ‘어제’가 모여 ‘오늘’ 우리를 있게 하였습니다. 보람 있었던 일 만큼이나 아쉬운 점도 있었지만, 지난 일 년 동안 총연합회는 한센 가족들과 하나가 되어 열심히 뛰었습니다. 국내 유일의 한센인 자조단체로 역사와 전통에 걸맞은 단체로 발전할 수 있도록 계묘년 한 해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심부름 한다는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어 영광입니다. 사람보다 값진 것은 없다고 합니다. 새해에도 좋은 인연으로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받은 은혜를 갚는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2023년에는 이루고자 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고, 건강하셔서 더 나은 자신감과 축복이 늘 함께하는 아름다운 한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사)한국한센총연합회 회장 이길용

한센포커스

리포트



“한센인 가족으로 살아왔던 지난 삶, 한·일 변호단과 함께 ‘목소리’를 높여”

한센 ‘가족보상’ 청구 한·일 변호단 회의

지난 1월 6일 서울지방법변호사회관에서 총연합회 이길용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한센인 가족 보상 청구 한·일 변호단 회의가 진행되었다.

한국변호단의 단장인 조영선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회의는 그 동안 총연합회와 양국 변호단이 함께 진행한 ‘일본 정부 대상, 한센인 가족 보상’의 지난 날 발자취를 돌아보고, 한센인 가족 보상 대상자 면담을 통하여 일제 강점기하 한센인 가족으로 삶을 살았던 한센인 가족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으로 이뤄졌다.

이날 한국변호인단에서는 박영립 변호사와 조영선 변호사를 비롯한 한센가족보상청구변호인단(박종강, 서중희, 이영기, 이정일)이 참석하였으며, 일본변호인단에서는 도쿠다 야스유키 변호사 외 4명이 참석하였다.

이길용 회장은 양국 변호인단이 2003년부터 한센인권변호단으로서의 공동연대 활동을 시작하여 지금까지 한센인의 인권 향상을 위해 애쓰고, 한센 가족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준 것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도 한센인과 가족들의 삶을 위해 깊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하였다.

‘일본 정부 대상, 한센인 가족 보상’은 한센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 격리와 그로 인한 피해의 문제를 한센인 가족까지 확대하여 가족이 당한 피해에 대해 인정하고, 보상함으로써 인권 증진을 이루어낸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 한센 가족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보상청구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24페이지 참고

“희망을 전하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총연합회, ‘설맞이 이웃사랑’ 후원금 받아



우리 총연합회는 1월 12일(목)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 aT)로부터 설 명절을 앞두고 한센 가족들의 풍요롭고 따뜻한 명절을 위한 후원금을 지원받았으며, 전달식에는 이길용 총연합회장과 김춘진 aT 사장 등 관계자가 참석하였다.

aT는 한센인의 인권 보호와 건강증진을 위해 2021년부터 꾸준한 관심과 기부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설 명절을 앞두고 한센 가족들이 풍성하고 행복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후원금을 전달했다.

이길용 회장은 “한센인들을 위해 꾸준한 관심과 나눔을 실천한 김춘진 사장에게 감사드린다”며, “전달받은 후원금은 한센인의 교육과 복지증진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소중하게 전달하겠다”고 전했다.

김춘진 사장은 “사회적 편견과 차별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것이 공공기관의 책무”라며 “어려운 이웃에게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만이 우리 사회를 하나로 만들 수 있다”고 전했다.

‘우리 마음의 촌장님’, 김성수 정책자문위원과 함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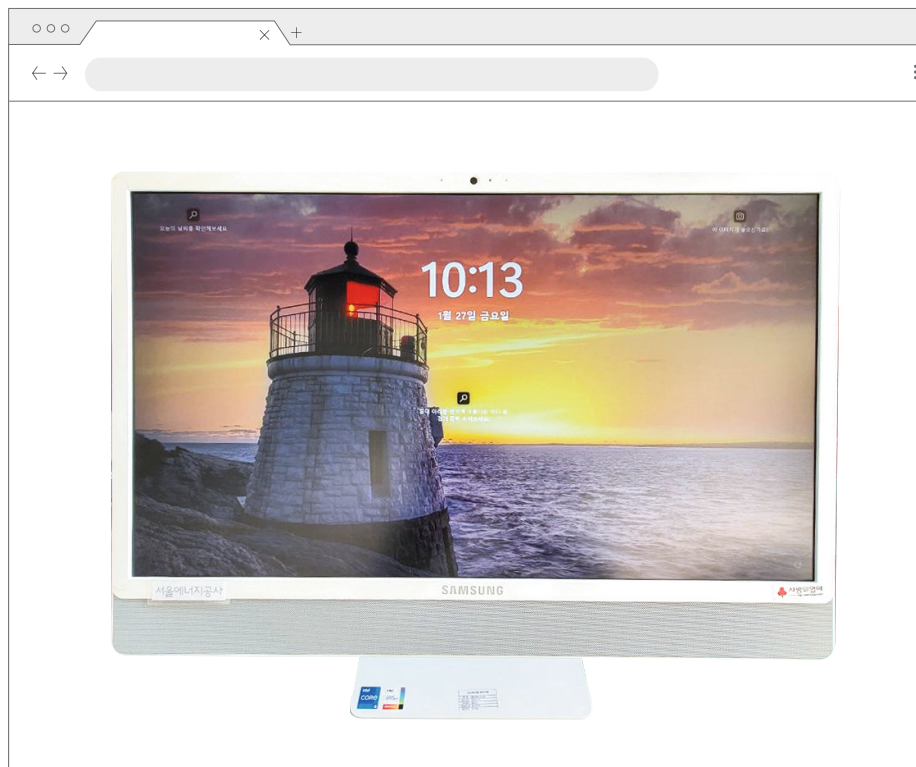
1월 11일 총연합회 이길용 회장과 우홍선 사무총장은 총연합회 정책자문위원 겸 대한성공회 초대 관구장을 역임한 김성수 주교를 방문하였다.

대한성공회 서울교구 사회복지재단이 운영하는 ‘우리마을(인천 강화도 길상면)’은 발달장애인들에게 안정적 일자리와 함께 경제적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직업재활시설로서, 김성수 주교는 발달장애인을 위해 사업을 시작하여 콩나물 재배, 전자부품 조립, 버려지는 커피 찌꺼기를 활용해 연필과 화분 등 친환경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김성수 주교는 젊은 시절 사제들을 한센인 마을로 보내 산동네 판자촌에 ‘나눔의 집’을 열도록 격려하고, 한센인들이 닭을 치던 성생마을에 ‘살롬의 집’을 만들도록 독려하며 한센인과 장애인 등을 위한 삶을 평생 살아오고 있다.

지난 22년 12월 6일, 서울 정동 대한성공회 서울주교좌성당에서 김성수 주교에 대한 헌정문집 ‘우리 마음의 촌장님’출판 기념 북 콘서트가 개최된 바 있다.

서울에너지공사 지정기탁사업



우리 총연합회는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서울에너지공사 지정기탁사업'을 통하여 지난 1월 11일 국립소록도병원 원생자치회(회장 박형석)에 삼성 울인원 PC 2대를 배분하였다. 소록도 거주 한센인을 대변하고 있는 원생자치회에 최신형 PC를 제공함으로써 원활하고, 신속한 업무 처리가 가능하도록 지원하였다.

신년하례예배



지난 1월 17일 에버그린사회복지센터에서 총연합회·한국한성장로회·한국 IDEA협회가 공동 주최한 ‘2023 시무식 및 신년하례예배’를 개최했다. 한국한성장로회 정기호 장로의 인도 아래 1부 예배, 2부 신년 인사회 순으로 진행되었다.

1부 예배에선 성광교회 이승재 목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라는 주제로 참석자들에게 따뜻한 축복의 말씀을 전달하였으며, 에버그린사회복지센터 어르신들도 예배에 참석하여 말씀을 경청했다.

이어진 2부 신년 인사회에서 이길용 회장은 “다사 다난 했던 한 해를 보내고, 다가오는 2023년 계묘년에도 변함없는 사랑과 후원을 통해 소외에서 소통으로, 암울했던 과거의 기억을 떨쳐버리고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마지막 노년의 생활이 조금이나마 불편함 없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과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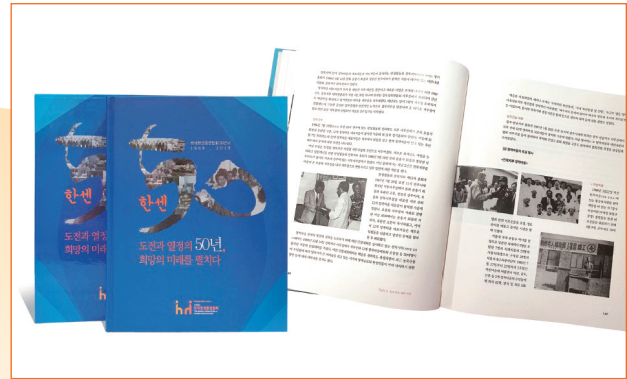
‘역사’ 보존, 국가 ‘유산’을 위한 노력... 대만 · 말레이시아, 한센인(병) 연구 교수 방문

2월 2일 한국의 김재형 교수를 비롯하여 대만 중국문화대학 건축학과 왕수이 교수 및 대만 칭화대 사회학과 형일링 교수, 말레이시아 과학대학교 사회과학대학원 포홍홍 교수가 총연합회를 방문하였다.

과거 한국의 소록도와 대만의 낙생원은 일본의 식민지인 반면, 말레이시아의 순가이 부로는 영국의 식민지였으며, 각 국의 식민지 유산인 요양소를 ‘국가 유산’으로 만들기 위한 연구를 위해 총연합회 이길용 회장과의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요양소 보존을 위한 사회운동’

이번 세 국가의 연구를 통해 유산은 정지된 것이 아니라 과거와 새롭게 관계 맺고 재해석을 형성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으며, 한국 · 대만 · 말레이시아의 요양소 보존 운동을 조사함으로써 식민지 유산이 어떻게 ‘국가 유산’으로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설명을 제공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한센인(병)과 요양소에 대한 역사적 연구가 풍부하게 진행되는 것에 비해, 요양소 유산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다른 연구과 이 연구의 가장 큰 차이 중 하나는 이러한 유산을 변화 하지 않는 장소로 인식하기 보다는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과정으로서 인식하고 요양소 보존을 위한 사회 운동이 될 것이다.



한센인(병) 역사 보존 및 유산을 위한 세 국가의 진행과정 및 노력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한센인들이 직접 참여하고 역사를 기록하는 곳으로는 한국의 한국한센총연합회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총연합회에서는 역사를 보존하기 위해 세계한센포럼을 개최하고, 한센 50년사, 「한센」 소식지를 비롯, 다양한 시대 역사를 반영 기록한 책을 발간하고 있다.



또한, 총연합회는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하여- 한센문화 유적의 역사적 중요성’이라는 주제로 한센시설을 재조명하기 위한 세계한센포럼을 개최하여, 한센시설이라는 공동 관심사를 논의하고 발전시켜 한센 정책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중심이자 대표가 되었다.

“국가 유산 보존을 위한 노력”

반면, 대만과 말레이시아는 한센인(병)을 위한 협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고, 한센인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있기는 하나 기념관 설립 및 문화재 보존을 위한 노력은 일반인들이 하고 있다.

동아시아와 말레이시아에서는 낙인과 차별, 수치의 공간이었던 요양소는 이제 ‘국가적 자존심’의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요양소들을 유네스코(UNESCO)의 세계유산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한국의 대표적인 국립소록도병원은 국립소록도병원 한센병박물관 학술대회를 개최하며, ‘소록도 문화유산 보호 체계 논의’를 하고 있으며, 박혜경 원장은 “소록도병원은 병원 운영 및 주민 생활권 보호에 집중하는 한편 문화유산 보존 측면을 고려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고 말했다.

총연합회 이길용 회장은 “역사는 되풀이 되고 반복되는 것이기에 한센인(병) 역사 보존의 중요성에 대하여 한센인을 비롯한 일반인의 인식개선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갖고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으며, “한센인(병)에 대한 차별 · 편견으로 인한 폐해를 제거하고, 미래 한센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과거의 역사적 사실들을 미래 세대에게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모두가 뜻을 모으고 협력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복지’증진, ‘인권’신장, ‘민원’해결을 위한 ‘소통’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기획재정부

우리 총연합회 지난 1월 26일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와 ‘한센 현안과 위로지원금인상’ 등 한센 민원에 대해 공유하고 논의했다. 이번 면담은 한센 현황에 맞춘 사업적 논의와 적합도 등을 검토하고 민원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였다.

이어서, 1월 30일 질병관리청 에이즈관리과와 ‘2023년 사업계획 및 한센사업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2023년에 진행되는 한센사업과 신규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앞으로의 한센사업 방향에 대한 사항 등을 공유하였다.

총연합회 이길용 회장과 우홍선 사무총장은 2월 7일 한병도 의원, 2월 8일 기획재정부, 2월 15일 김민석 의원과의 면담을 통해 한센인 민원과 관련하여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에게 지급되고 있는 ‘위로(생활)지원금’을 물가변동을 반영하여 지속적인 인상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고, 한센인피해사건의 역사적 의미 조명 및 피해자들의 명예회복, 한센병(인) 관련 사회적 차별과 편견해소를 위한 교육홍보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한센인피해사건 기념관 건립에 대해 논의하였다.

우리 총연합회는 보건복지부 등 유관부처 및 국회의원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한센인 삶의 만족도 향상과 복지증진 및 인권 신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정기 감사 실시

지난 1월 18일 총연합회 사무실에서 정기 감사를 실시했다. 정관 감사규정에 의거해 진행된 이번 정기 감사는 선진순 감사 주재로 실시되었다. 이번 감사는 자료 제출과 현장 질의 및 응답 방법을 병행하여 진행되었으며, 감사 대상은 총무·회계·사업 분야 등 총연합회 업무 전반이었다.

이번 정기 감사와 관련해 선진순 감사는 “감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적으로 사업 운영 및 예산이 이상 없이 집행되고 있다.”며 “어려운 운영 여건 속에서도 총연합회 운영을 위해 노력해주신 협회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보다 더 효율적인 총연합회 운영을 위해 수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고문단 회의

우리 총연합회는 1월 30일 경기도 일산에서 고문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정상권, 박정수, 박명웅, 김정명 고문(무순)이 참석하여 2023년 총연합회 사업 추진을 위한 방안 등 발전을 위한 사항들을 자유롭게 논의하였으며, 회의에서 나온 고견을 바탕으로 총연합회와 한센 가족이 함께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한센 가족 지원 사업 발굴 및 확대, 한센 가족 인권 신장을 위한 대회 활동 등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정기이사회 개최

2월 21일 에버그린사회복지센터에서 총연합회 정기이사회가 개최되었다. 이길용 회장은 개회사에서 “바쁘신 일정 속에 전국 각지에서 이사회 참석을 위해 와주셔서 감사하다. 이번 이사회를 통해 우리 총연합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미래를 위해 함께 고민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가 되도록 이사님들의 협조와 관심 부탁한다.”고 말했다. 상정된 이사회 안건으로는 ▲202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승인, ▲2023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승인, ▲감사 지명(안) 승인이다.



정기 대의원총회 개최 예정

우리 총연합회는 지난 2년간 코로나19에 의해 서면결의로 진행되었던 대의원총회가 2월 28일 에버그린사회복지센터에서 이길용 회장을 비롯한 총연합회 임직원들과 전국 대의원들이 모인 가운데 개최될 예정이다. 개회선언과 함께 성원보고에 이어 감사보고 및 전년도 업무보고가 있을 예정이며, 부의안건으로 ▲202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 ▲2023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승인 ▲감사 선출(안) 승인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민간경상보조사업 감사 실시 예정

대통령 지시 및 중앙부처 감사관회의에 따라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 실시 예정

- 2023. 3. 2.~3.3.
에버그린사회복지센터 감사
- 2023. 3. 9.~3.10.
본부 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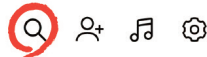


총연합회 카카오톡

+ 채널 추가하는 방법

1. 카카오톡 상단 돋보기 아이콘을 터치한다.

친구



한센사랑

2. 한국한센총연합회를 검색한다.

← 한국한센총연합회

채널



(사)한국한센총연합회

한센인과 국민 간의 소통을 통한 한센인(병) 편견해소, 한센인의 사회통합과 재활 실현을 위...



3. 채널 추가하고 다양한 소식 받아보기



(사)한국한센총연합회

친구 81 명

한센인과 국민 간의 소통을 통한 한센인(병) 편견해소, 한센인의 사회통합과 재활 실현을 위한 단체임

채팅하기

채널 추가

소식

정보

상담원 채팅

월,화,수,목,금 09:00~18:00

기관/단체 > 복지

<http://www.hansenkorea.org/>

02-1566-23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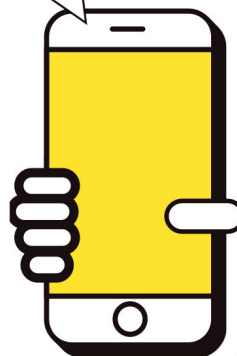
hansen@hansenkorea.org

연택트시대에도

당신의 **온기**로 채워지는
따뜻한 세상



QR 코드를 스캔하면
카카오톡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한센인의 인권과 복지 증진을 위해!”

총연합회 2023년 주요 사업 소개

우리 총연합회는 평균 연령이 80세인 고령 한센인의 신체적 기능 및 지역의 상황을 반영하여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



한센인 평생교육사업

사회적 고립으로 교육의 기회가 부족한 한센인의 사회적 적응을 위한 실용교육 확대 (스마트폰 · 키오스크 활용 교육 등)

한센인 복지사업

고령 한센인의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위한 맞춤형 사업 강화

대국민 홍보사업

한센인(병)에 편견 해소 및 인식 개선을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주기적인 정보 전달 제공

한센인 평생교육 사업

배움행복마을

한센병으로 인한 격리와 교육적 차별을 경험한 한센인들에게 정착마을을 직접 찾아가 차별 받지 않는 교육환경을 구성하고, 한센인의 특수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배움의 행복과 마을의 관계성 향상을 돕는 교육

- 사업시기 : 2023년 3월~11월(3회)
- 내용 : 생활 활용 지식 습득(스마트폰, 키오스크, PC 활용, 공예 등) 건강 증진(낙상예방, 실버체조 등) 배움의 행복 추구하고 관계성 향상 (인문학, 문화·예술, 체험, 놀이, 음악, 요리 등)



치매예방교육

고령의 한센인에게 맞춤형 제공으로, 노인성 질환 '치매'를 예방하여 노년의 삶의 질을 높이는 교육

- 사업시기 : 2023년 3월~11월
- 내용 : 한센인 맞춤형 치매예방교육으로 오감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



한센인 복지사업

보건요원교육

한센인의 건강 관리를 돕는 정착마을 보건요원의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한 한센인의 건강 증진

■ 사업시기 : 2023년 4월

■ 내용 : 고령 한센인의 건강관리, 한센병 신규 환자, 재발 환자 사례를 통한 약 복용의 중요성 교육



찾아가는 문화복지

정착마을로 찾아가 다양한 문화 공연등을 선사하여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 사업시기 : 2023년 3월

■ 내용 : 찾아가는 이동식 문화공연 프로그램(미술·품바·태권도 공연 등)



한센인 복지사업

한센인 합동결혼식

경제적 곤경 및 사회적 편견 등으로 인해,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한센인들의 합동결혼식

■ 사업시기 : 2023년 6월

■ 내용 : 합동결혼식(예복·헤어 및 메이크업), 야외촬영, 호텔 1박 등



우리마을 행복사진관

건강과 장수 기원의 의미를 담아 장수 촬영의 기회를 제공하고, 한센인의 노후 준비 기여

■ 사업시기 : 2023년 4월

■ 내용 : 메이크업 및 헤어드라이, 의상 제공, 사진 촬영, 촬영 이미지 후보정, 액자 제작 등



대국민 홍보 사업

한센인 독거노인 돌봄

고령 한센인에게 안부 전화 사업을 통해 소외와 고립 등의 문제 해소

- 사업시기 : 2023년 3월~11월
- 내용 : 주 3회 진행, 건강 관련 사항 및 생활 환경 개선 관련 사항 등에 관한 사항 확인, 생활사 및 건강 등의 개인 변동사항 기록



전국 한센인의 날

한센인(병)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 및 국가한센사업을 홍보하고 한센인 간 친목 교류 및 화합의 장을 제공

- 사업시기 : 2023년 5월
- 내용 : 기념식, 한센인 국가 유공자 표창 등



대국민 홍보 사업

일반국민 인식조사

한센인(병)에 대한 일반 국민이 가지고 있는 인식을 파악하며, 향후 정확한 정보 전달과 관련 법안 제정 및 효과적인 인식개선을 위한 방향성을 설정할 수 있는 통계 자료 필요

■ 사업시기 : 2023년 7월~10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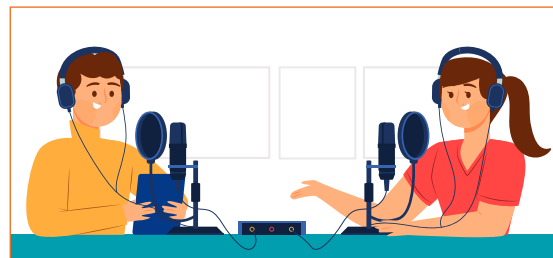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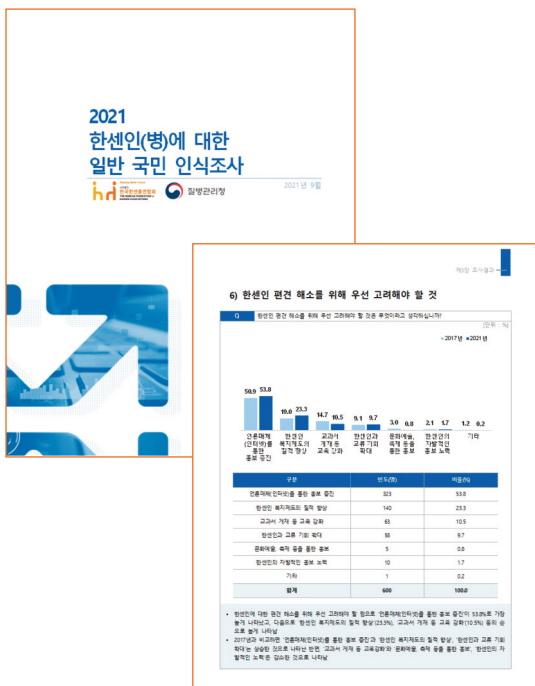
■ 내용

한센인(병)에 대한 인지 및 이해 정도
한센인(병) 차별 해소를 위한 고려사항
한센인(병) 정보 습득 및 홍보

한센인(병) 편견 해소 라디오 CM송출

대국민에게 친숙하게 접근할 수 있는 CM을 송출함으로써 한센인(병)에 대한 잘못된 정보로 인해 발생하는 편견 및 차별을 방지하고 한센인(병)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을 통해 일반국민의 몰이해 해소

■ 사업시기 : 2023년 5월



대국민 홍보 사업

「한센」 발간 및 다양한 홍보 매체 운영

「한센」 발간 및 다양한 홍보 매체(홈페이지 및 SNS, 메신저 등)를 통해 한센인(병)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일반인의 인식 개선 및 관심을 유도



더 나은 미래로

트위터



더 나은 미래로

유튜브



더 나은 미래로

인스타그램



더 나은 미래로

페이스북

한센 가족, 일본 정부 상대 ‘보상청구’

1

일본 한센 가족들에 대한 보상 판결

- 일본 정부는 과거 일제강점기하 소록도에 강제격리·노동을 당한 한센피해자들에게 일본 한센 보상법을 제정하여 보상을 실시한 바 있음
- 이후 한센인 가족들이 일본 구마모토 지방법원에 제기한 보상청구소송 또한 2019. 6. 28. 승소 판결하였고, 이에 일본 정부는 항소를 포기하고 판결 취지에 따라 2019. 11. 15. 한센병원환자가족보상법을 제정하여 한센인 가족들에게 보상을 실시하고 있음
- 격리 정책으로 인한 한센 가족 피해를 인정하고 사죄·반성을 표하면서, 한센 가족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고, 그 명예회복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한센가족보상법 제정

2

일본 한센 가족들에 대한 보상 판결

- 보상금은 친자, 배우자 180만엔, 형제자매 130만엔 등
- 청구시한은 2024. 11. 24.까지(한시법)

3

보상 대상

- 가족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이하 청구자)는 일제강점기하(1945. 8. 15.)에 한센병이 발병된 부모, 형제자매, 배우자(이하 원환자)의 가족
- 대상자는 1945. 8. 15.이전 출생자로서 생존하고, 한센병 발병여부 불문(한센인, 비한센인 여부 불문)

- 대상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혼인일이 1945. 8. 15. 이전이어야 하며, 사실혼 배우자도 가능
- 원환자는 1945. 8. 15.이전 발병자로서 소록도 입소 및 사망 여부 불문
- 원환자가 일본으로부터 소록도 보상을 받은 경우도 가능(대상자가 일본으로부터 보상을 받은 경우는 제외)

4

청구시 필요 서류(예시)

- ① 원환자 일제하 한센병 발병사실 증명서류
 - 한센등록(관리)카드, 한센사업기록표, 나병력자 관리카드, 소록도 입소 증명서, 교적부, 세례명부, 소록도 보상결정문 등
- ② 대상자가 원환자의 가족임을 입증하는 서류
 - 일제 또는 해방후 구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 ③ 대상자가 1945. 8. 15. 이전 출생자로 생존한 사실
 - 주민등록 초본
- ④ 대상자 은행계좌 사본 ⑤ 기타 입증서류

5

안내 및 문의

- 현재 한국 변호사들은 ‘한센가족보상청구변호단’을 구성(단장 조영선 변호사)하여 일본 변호단과 업무협의를 추진하였음
- 2023. 1. 31. 기준 143명(1차 62명, 2차 63명, 3차 14명, 4차 1명, 5차 3명)을 일본에 송부하여 13명이 보상 결정되었고, 추가적인 보상 심의 중임
- 한센인 가족 피해보상은 한센인 및 그 가족들이 당한 차별과 편견에 대한 보상임
- 문의사항 : 한국한센총연합회 정태영 과장(1566-2339)

최인옥

제8회 한센인 편견해소공모전 포스터 부분

한센인은 한 가족



편견과 차별을 넘어 한센인은 우리의 이웃입니다

h n 한국한센총연합회

“한국을 제2의 고향으로 삼고 한국인들과 같이 살다가 마지막 나팔 소리를 들을 때까지 그들과 같이 일하리라”

윌 리 엄 존 맥 켄 지

(William John Mackenzie/1861-1895)

맥켄지 한국 땅을 밟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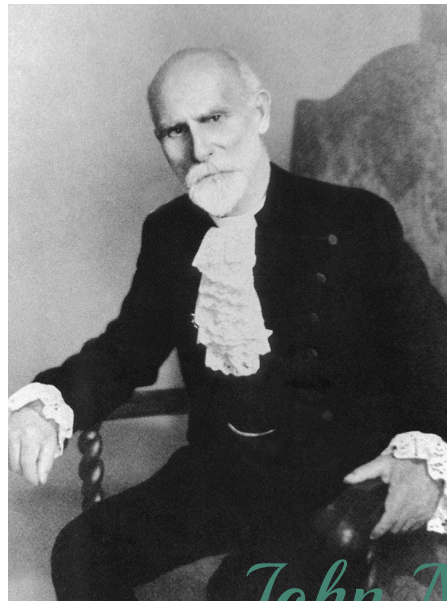
맥켄지 선교사(William John Mackenzie)는 1861년 캐나다 케이프 브레톤에서 태어나 델하우지 대학(Dalhousie College)과 장로교 대학에서 교육을 받으며 신학의 길을 걸었다. 대학 시절 18개월 동안 라브라도(Labrador)에서 개척전도를 하며 선교사로서의 일을 했고, 이 시절 조선에 대한 책을 읽고 큰 감명을 받아 조선으로의 선교활동을 결심하게 된다.

맥켄지는 한국선교사로 지원했고, 호주 빅토리아장로회 해외선교위원회는 파송이 여의치 않은 여건임에도 1년 치 봉급을 받지 않더라도 선교활동을 하겠다는 그의 열정에 감동하여 그를 청년선교단

‘The Young People’s Mission Band, YPMB’이 후원하는 첫 선교사로 한국에 파송되었다.

처음에 그는 먼저 사역하고 있는 앵겔 선교사와 연합해 선교활동을 시작했다. 1919년 그가 평양으로 사역지를 옮기자 금사교회, 내리교회와 울산지역에 화전교회, 평동교회 등을 순회 전도를 하였다. 이후 부산진교회 담임, 일신학교 설립 등 경남노회에서 여러 일로 섬겼다.

그는 또 울릉도를 방문한 첫 선교사였다는 점도 중요하다. 1914년 울릉도에 흉년이 들었을 때 호주 선교부가 이를 돕기로 했는데, 이때 맥켄지가 울릉도를 방문해 그곳에 있는 교회들을 맡아 성실히 사역을 감당했다. 맥켄지는 한국인들과 같이 지내며 한국 옷을 입고 짚신을 신고 한국 음식을 먹으며 한국 문화와 풍습을 익히는 등 한국 사람과 같이 아니 한국인으로 살아갔다. 특히 서울의 언더우드 선교사가 한국 음식이 입맛에 맞지 않을 것이라고 성탄절에 미국에서 가져온 음식을 술내에 있던 맥켄지에게 보



*William
John Mackenzie*

냈는데, 그는 그것을 한국인들에게 나누어 주고 자신은 끝까지 한국인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하며 그 선물들을 교인들에게 나누어주고 자신은 하나도 취하지 않았다. 또 1895년 7월 술내교회를 신축하여 헌당식을 하고 교회를 개방하였으며 교회 내의 공간을 교육장 및 환자들의 병실로도 사용을 하게 하는 등 주민들을 위한 일을 먼저 하였기에 술내 주민들에게 폭 넓은 인정과 존경을 받았다. 목회 당시 동학군이 술내 마을을 휩쓸고 지나갔는데 주민들의 보증으로 전혀 해를 입지 않게 되었을 정도였다.



1920년 광주나병원 환자들의 모습

한국 한센인들의 친구, 맥켄지

한국에는 많은 한센병 환자들이 있었지만 적절한 치료나 보호 없이 멸시와 천대를 받고 살았다. 1912년 맥켄지가 나병원 원장으로 취임하면서 병원의 이름을 상애원으로 부르고 은퇴할 때까지 27년 간 한센인들을 돌보았다. 당시 우리나라 2만 명의 한센병 환자가 있었는데 그 중 부산·경남에 7000명이 있었다. 한센병 환자가 많아 이들을 돌보는 사역이 필요했는데 맥켄지가 이 사역을 담당한 것이다.

처음은 20여 명으로 시작되었고, 점차 그 수가 증가되었다. 1914년에는 80여 명으로 증가하였고 이후는 650여 명의 한센인을 수용하는 정착마을이 되었다. 그리고 한센인 복음화를 위해 상애원 내에 상애교회(현 창대교회)를 창립하였다.

그는 정식 의사가 아니었으나, 한센병을 치료하는 방법을 익혀 결국 정부로부터 의사로 인정을 받았다. 맥켄지는 환자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다양한 치료법을 연구하여 환자들에게 적용했고, 그 결과 1918년에는 25%에 이르던 환자 사망률이



맥켄지 선교사 부부와 두 딸 헬렌과 캐서린의 모습

1923년에는 2% 이하로 떨어지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다. 당시 선진국에서의 사망률이 5~6%였음을 감안한다면 놀랄만한 성과였다. 맥켄지는 한센병 치료에 변함없는 사랑의 보살핌과 규칙적인 좋은 음식, 그리고 환자가 가진 다른 질병들에 대한 치료가 중요하다고 보았다. 연약한 체질개선을 위해 가사노동이나 요리, 농작물 재배 등을 감당하도록 했다.

대를 이은 ‘선교’의 길

“아들이 없어 후임을 물려주지 못해 마음이 아프다. 그러나 내가 딸이 있는데 꼭 공부시켜서 한국 사람에게 보내겠다.”

그는 1939년 은퇴하고 호주로 돌아갔다. 상애원 한센병 환자들과 나눈 맥켄지의 대화는 또 다른 비전이 되었다.

맥켄지는 1905년 호주 선교사로 내한하여 부산과 진주에서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가

르치는 여성 메리를 만나 재혼하였다. 그녀도 남편 맥켄지의 한센병 환자를 돌보는 사역을 도왔다. 부부는 슬하에 딸이 셋이었는데 산부인과 전문의인 첫째 딸 헬렌(Helen P. Mckenzie)과 간호사인 둘째 딸 캐더린(Catherine M. Mckenzie)은 호주 선교사로 다시 한국에 와서 1952년 5월 9일 부산시 동구 좌천동 471번지에 부산일신병원을 설립했다.



맥켄지 선교사의 묘

한국과 호주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했던 맥켄지, 가장 낮고 천한 곳에서 신을 하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었던 그는 90여 년간의 생애를 마감하고 1956년 7월 1일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멜본에 있는 그의 묘비에는 ‘한국 한센인의 친구(Friend of Korean Lepers)’라고 새겨져 있으며, 부산시 동구 좌천동의 일신기독병원에는 ‘맥켄지 기념관’과 ‘맥켄지 기념비’가 복원되어 그의 사랑과 나눔을 기념하고 있다.

2012년 4월 15일, 한센인의 친구로 살았던 맥켄지 선교사의 희생적 사랑의 정신을 계승하고자 ‘맥켄지한센선교회’가 설립되었고, 총연합회 이길용 회장은 “맥켄지 선교사는 소외당하고 버림받은 길거리의 수많은 한센인들을 긍휼히 여겨 돌봐주시고 복음을 전해주시신 분”이라며 “우리에겐 잊을 수 없는 분”이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맥켄지 선교사의 사랑은 후대에도 이어져 큰 딸 매혜란 선교사와 둘째 딸 매혜영 선교사가 대를 이어 선교에 동참해 일신기독병원을 설립하는 등 일생을 한국을 위해 봉사하시는 분”이라고 회상하였다.



영신마을

1940년 하동군 적량면 동산리 298번지 '구영신원'이라는 곳에 4세대 8명이 모여 움막을 치고 문전걸식을 하며 생활하던 가운데 한, 두 사람씩 모여 지금의 영신마을이 되었다.

2022년도 정기 대의원총회 개최



한국한센복지협회는 12월 16일 협회 교육관(대면회의 및 화상회의 동시 진행)에서 2022년도 정기 대의원총회를 개최하였다.

먼저 한센사업 발전에 힘쓴 공로를 기리기 위한 회장 표창 및 동성봉사상 수여식이 있었으며 이어서 총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총회는 재적 대의원 28명 중 17명이 참석하여 성원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2022년 주요업무 추진 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와 2023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안, 정관 일부 개정안 등 부의안건 의결과 임원 선출이 있었다.

금년 임기가 만료되는 김병태 감사는 신임 이사로 선출되었으며, 정상권 감사는 유임되어 신임 감사로 선출된 박석돈 여수애양병원 피부과 부장(전 원광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전 대한나학회 회장)과 함께 2023년도부터 2년간 협회 감사직을 수행하게 되었다.



‘화합·소통’으로 따뜻한 ‘생일잔치’

66

1월 10일 오후 1시부터 에버그린사회복지센터 내 2층 로비에서 어르신들의 생신잔치가 진행되었다. 센터 직원들과 어르신들이 모두 모여 1월 생신을 맞으신 어르신들에게 케이크에 촛불을 켜고 노래를 불러드리며 함께 축하해 주었으며, 매월 1회 진행하고 있는 생신잔치 프로그램은 월별 생일을 맞으신 어르신들에게 생신 상을 차려 드림으로 가족과 떨어져 있어 느낄 수 있는 섭섭함을 방지하고 다과를 나누어 먹으며 함께 화합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99



‘인지’능력과 ‘감성’까지 UP!, 직접 만드는 가족 공예

66

2023년 계묘년, 토끼해를 맞이하여 어르신들과 함께 다용도 토끼 지갑 만들기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에버그린사회복지센터 어르신들은 식사 후 1층과 2층 로비에 앉아 각 층에 마련되어 있는 자판기에 동전 100원을 넣어 커피나 율무차를 뽑아 마시며, 담소를 나누는 것이 제일 좋아하는 하루 일과이다.

자판기 사용을 위해 사무실을 찾아 동전을 바꾸고, 동전 넣을 곳이 마땅치 않아 비닐 봉지나, 빈 약통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을 위해 에버그린사회복지센터에서 ‘다용도 토끼 지갑 만들기’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 사회복지무원들과 직원들이 함께하였으며, 개인별 주어진 토끼 지갑 키트를 가지고 바느질을

이용하여 귀여운 토끼 지갑을 완성하였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르신들께서는 오랜만에 하는 바느질이라 눈이 잘 보이지 않는다면 안경까지 가져와 끼시고 끝까지 완성하는 열정을 보였으며, 완성된 지갑에 동전을 가득 넣으며 “가족이라 오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 “죽을 때까지 사용할거다.”라며 좋아하셨다. 이번 다용도 토끼 지갑 만들기 프로그램은 어르신들의 인지 능력 뿐 아니라 감성까지 자극하는 특별 활동시간이 되었다.

99



“지금 행동하라, 한센병을 종식시키자” 세계 한센병의 날

2023년 1월 29일은 ‘세계 한센병의 날’이었다.

‘세계 한센병의 날’은 1954년 프랑스의 세계적인 한센사업가이자 자선사업가인 라울 폴레로(Raoul Follereau)가 편견이 심한 한센병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높이고, 한센병은 쉽게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다는 사실을 대중들에게 알릴 목적으로 만든 날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올해 ‘세계 한센병의 날’주제를 “지금 행동하라:한센병을 종식시키자(Act Now:End Leprosy)”로 정하고, 한센병 관련 대중의 인식 개선과 한센병 퇴치를 위한 각국의 노력을 촉구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한센병 신환자는 2021년 한 해 동안 14,054명이 발생하였고, 이 중 66.5%(93,485명)는 인도,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 되었다.

우리나라는 2008년 이후 한 자릿수 신환자 발생을 유지하고 있으며 지난 2022년에는 2명의 신환자가 보고되었다.

국내 한센병 신환자 발생율은 1만 명 당 0.02명으로, 선진국에 부합하는 관리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신환자 발생이 지속 중에 있고, 특히, 최근들어 동남아 지역 등으로부터 유입된 외국인 신환자 비중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질병관리청은 한센병 종식을 위해서는 외국인 신환자의 조기발견과 치료가 중

요하다고 보고, 외국인 대상 한센병 검진 사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각 지역 외국인지원센터 등과 협력하여 외국인 대상 한센병 무료 검진 및 상담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한센병 주요 유병국가 출신 외국인 근로자 등이 많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검진 사업을 펼치고, 점차 지역과 대상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며, 또한, 신환자 감소로 한센병 진료 기회가 줄어 의료진이 한센병 진단을 놓치거나 지연하는 사례를 대비하여, 피부과·신경과 등 일선 의료기관에 도식화된 한센병 진단사례를 배포하는 한편, 주요 유병국가 출신 외국인이 발진, 구진, 결절 등 전형적인 의심 증상으로 내원할 경우, 전문 검사기관(한국한센복지협회)에 한센병 진단을 의뢰할 것을 당부하였다.

질병관리청 에이즈관리과 민선녀 과장은 “한센병 종식을 위해서는 신환자 조기발견 및 치료가 중요하므로, 주요 신환자 발생그룹 등에 대한 검사와 감시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한국한센복지협회(회장 김인권)에서는 ‘세계 한센병의 날’을 맞아 한센병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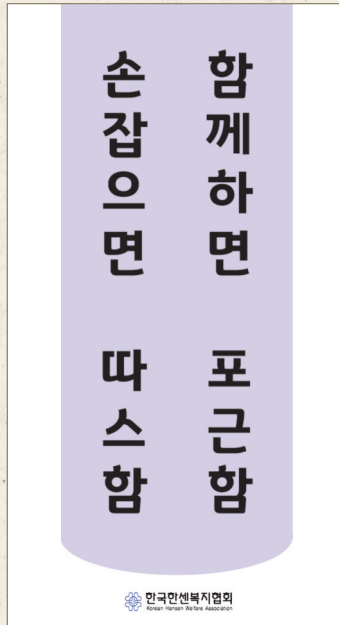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 매년 표어.포스터를 공모하고 있다. 이번년도도 어김없이 세계 한센병의 날 표어.포스터 공모를 실시하였고, 수상작이 발표되었다. 당선작들은 한센병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고 건강한 사회 공동체를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홍보 매체에서 홍보될 예정이다.

‘세계 한센병의 날’은 질병에 대한 뿌리 깊은 오해와 편견에 주목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준다. 이 기회는 한센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종식시키기 위한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는 노력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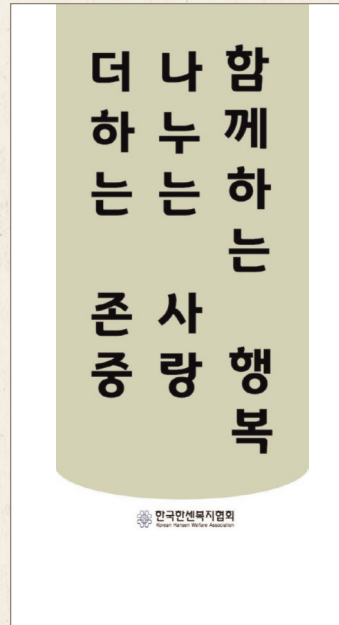


(출처:질병관리청)

<제70회 세계 한센병의 날 표어 · 포스터 공모전 당선작>



<표어>
손잡으면 따스함 함께하면
포근함(안환구)



<표어>
더하는 존중 나누는 사랑
함께하는 행복(배오현)



<포스터>
하나라도 빠지면 안되는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입니다(김보화)

(제공: (사)한국한센복지협회)

한센인은 장애를 가졌을 뿐, 일반인과 같은 “우리의 이웃”입니다.

한센병이란, 나균(Mycobacterium Lepae)에 의해 발병되는 만성 감염병이며, 피부와 말초신경에 주 병변을 일으키는 면역학적 질환으로 제2급 감염병으로 분류한다.

전과경로는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으며, 피부와 상기도가 주된 침입 경로로 알려져 있으며, 잠복기는 보통 2~5년으로 일부는 몇 주만에 발생하고 어떤 사람은 20~30년 이상이 걸리기도 한다.

증상은 피부.말초신경.비강점막의 만성 세균성 감염, 균이 주로 말초신경과 피부에 병변을 일으키고 뼈.근육.안구.고환 등을 침범한다.

특징적 임상 증상 확인, 분자생물학적 검사법에 의한 나균 확인, 조직 검사상 한센병 육아종 소견 확인, 병변의 도말 검사(항산성 염색)에서 항산균 확인으로 진단을 내리며, 표준복합화학 요법(dapsone, rifampicin, clofazimine)으로 치료할 수 있다.

신환자 진단 시 한센병 전문진료기관으로 치료연계하고 접촉자를 관리하며, 마지막 접촉 시점으로부터 최소 5년간 매년 검진을 권장한다.

예방백신은 아직 개발되지 않았으나 결핵예방 백신인 BCG가 어느 정도 효과가 있고, 한센병은 치료가 가능하며, 완치될 수 있는 질병이다.

파도인생

신재문(영락마을 대표)

망망대해 큰 파도 되어
앞서가고 뒤서가고
옆 친구도 함께 가는데

갑작스레 옆 친구
큰 바위 절벽에 부딪쳐
흰 거품 내어 놓고 사라져가네

겁에 질려 말없이 가는 길
큰 고기 작은 고기 찾아와
친구 되어주니
태평성대가 여기로구나

바람이 불어와 비가 오며
거동이 불편해져
몸이 사나워질 때

친구들 떠나가고
육지가 가까이 오매
큰 절벽에 부딪치지 않고
아름다운 모래 위에 쉬고 싶어라

증상도 완치도 없는 ‘골다공증’ 바로 알기

골다공증 진단과 치료



박소영
내분비대사내과 교수

전문 진료분야

- 골다공증, 당뇨병,
갑상선질환, 부신

약력

- 대한골대사학회 평생회원
- 대한당뇨병학회 정회원
- 대한갑상선학회 평생회원
- 대한내분비학회 정회원

30대 초반부터 골소실 시작돼

골다공증은 뼈의 양이 감소하고 강도가 약해져 골절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상태를 말합니다. 골절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아무 증상이 없기 때문에 진단과 치료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죠. 골다공증은 완치가 되는 질환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뼈는 30대 초반 최대 골량이 형성된 이후에 지속해서 골소실이 일어나는데요. 폐경과 노화는 뼈를 약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골다공증 치료가 단순히 골밀도만 올리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골다공증을 치료하고 관리해야 하는 것은 골절 위험도를 낮추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골밀도가 호전되는 것은 치료 효과를 판단하는 한 가지 지표일 뿐입니다. 또 치료를 하면 이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시는데, 여성의 경우에는 폐경,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는 연령이 골다공증에 작용하는 매우 중요한 인자이기 때문에 완전히 젊은 시절의 뼈로 돌아가기는 어렵다고 봐야죠.

‘골절 위험도’ 낮추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골밀도 검사를 주기적으로 받아 골다공증을 조기에 진단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45세 이하의 조기 폐경이 있는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폐경할 나이가 될 때까지 적절한 여성 호르몬을 보충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임신이나 폐경이 아님에도 월경을 하지 않는 이차성 무월경도 골다공증의 원인이 되는데요. 이때는 원인 질환을 감별하고 적절한 치료를 통해 규칙적인 월경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흡연, 과음, 운동 부족, 저체중 관련 골다공증 위험인자는 스스로 관리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생활 습관 개선을 통해 꾸준히 관리해 나가시길 당부드립니다. 불필요한 약물 복용을 피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는 건강한 운동과 식이요법을 유지해야 합니다.

저는 외래에 방문하는 골다공증 환자들에게 규칙적인 식사, 그리고 다양한 영양분을 골고루 섭취하라고 말씀드리는데요. 규칙적인 식생활을 통해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골다공증 환자에게 무척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유 등의 음식을 통해 부족한 영양분을 채우는 것도 좋습니다.



검사 신뢰도가 높은 병원

골밀도 검사를 시행할 때, 단순히 영상을 촬영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검사를 시행하는 검사자의 기술에 따라 검사의 오차가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경희대학교병원 내분비대사내과는 숙련된 전문 인력을 자랑합니다. 골밀도 검사를 위한 질 관리가 최상위로 이뤄지고 있고요. 진단에 가장 중요한 검사의 신뢰도가 높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이미 골절이 발생한 환자라면 정형외과와 신경외과, 재활의학과와의 협진을 통해 이차 골절 예방 관리를 철저하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골다공증, 장기적인 안목으로 ‘관리’하세요!

기대 수명이 길어지고, 노년의 삶이 길어지면서 골다공증은 점점 악화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골다공증을 치료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현재 상태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70대, 80대, 90대가 될 때까지를 고려한 장기적인 안목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숙련된 전문 의료진과 상의해야 하는 이유다.

(출처:경희의료원)

기분이 좋아지는 음식 6가지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기분 좋은 새해를 시작하기 위해 먹으면 기분도, 에너지도 업 되는 음식들을 찾아보았습니다.

새해에는 꼭 먹어야 할 음식 가지

바나나

바나나에 풍부히 함유된 트립토판은 행복호르몬으로 불리는 '세로토닌'의 생성을 돕고 긴장과 불안감을 완화해 주는 마그네슘도 함유돼 있어 바나나를 먹으면 기분이 개선되고 스트레스도 해소해준다.



오렌지

스트레스를 받으면 면역력이 많이 저하되는데, 오렌지에 풍부한 비타민C는 스트레스 해소는 물론 면역력도 강화시켜준다.



시금치

시금치와 같은 녹색잎채소들은 비타민B군과 엽산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우울증예방에 도움을 주며, 스트레스를 가라앉히고 마음을 안정시키는 마그네슘도 함유되어 있어 기분전환에 좋다. 엽산 수치가 낮을수록 우울증 발병 확률이 높다는 연구결과도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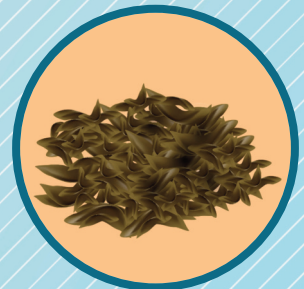
대추

‘천연신경안정제’로 불리는 대추 대추에는 ‘판토텐산’이라는 성분이 있어 신경을 안정시켜주는 역할을 하며, 불안하고 우울할 때 대추차를 마시면 도움이 되고 수면장애에도 좋은 음식이다.



녹차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막아주는 ‘테아닌’이라는 성분이 스트레스 수치를 낮춰주고 뇌세포성장 촉진 및 뇌를 편안하게 해 주는 등 심신을 안정시켜준다.



다크초콜릿

스트레스 받을 때 찾게 되는 ‘다크초콜릿’ 먹는 즉시 ‘달달한 맛’에 기분이 업 되는 느낌이며, 다크초콜릿에는 항산화성분이 풍부해 뇌활동을 자극하고 뇌로 가는 혈류를 증가시켜줘서 뇌건강에 도움을 주고, 특히 엔도르핀을 생성시켜 불안감을 떨쳐주고 우울증예방에 탁월하다



“요즘 내 기억력?”

기억력을 떨어뜨리는 음식 6가지

자꾸 깜빡깜빡하나요?

우리가 먹는 음식이 기억력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기억력을 떨어뜨리는 음식 리스트를 함께 살펴봅시다!

트랜스지방

마가린, 쇼트닝 등에 들어 있는 트랜스지방은 노화와 각종 염증을 유발하는 활성산소를 과하게 생성해 뇌의 기억 중추 역할을 하는 해마에 영향을 미쳐 기억력을 손상시킨다



술

알코올은 뇌의 신경전달물질 활동을 방해해서 뇌세포를 파괴하고 뇌기능을 둔화시킴에 따라 기억장애, 불안정, 행동장애, 알코올 중독, 알코올성치매 등의 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



가당음료

당분이 지나치게 많이 들어간 음료를 자주 섭취하면 해마 활동을 방해해서 뇌기능감소 및 기억력을 떨어뜨린다



질산염

통조림, 햄, 베이컨, 소시지 등의 가공식품을 만들 때 넣는 식품 첨가물로, 편두통을 유발할 수 있고 또 장내세균 변화를 일으켜 우울증을 겪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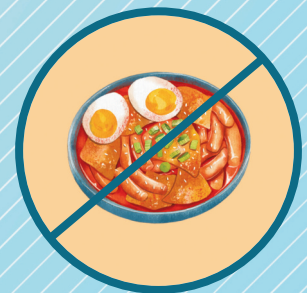
튀긴음식

치킨, 피자, 감자튀김 등 튀긴음식을 많이 섭취하면 체내염증을 유발해 뇌혈관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고탄수화물

흰쌀밥이나 떡볶이, 흰빵 등 탄수화물 함량이 높은 음식은 혈당을 급격히 올려서 뇌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며, 알츠하이머 발병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내 몸이 내는 작은 소리, 무심해서 안된다! 새해에는 ‘혈관’관리!

새해를 맞이해 건강관리 계획을 많이 세우고 있으시죠?
건강관리 중에서도 꼭 잡아야 할 중요한 한 가지가 ‘혈관건강’입니다.

혈관건강을 지켜라!

의료계에 따르면 혈관이상으로 발생하는 심장과 뇌질환은 국내 대표적인 사망 원인이라고 하는데요. ‘2021년 사망원인 통계 결과’에 따르면 암을 제외한 주요 만성질환 중 사망률이 가장 높은 것이 심장질환으로 인구 10만명당 61.5명, 폐렴과 함께 뇌혈관 질환이 44명으로 높았습니다.

심장질환 · 뇌혈관질환의 종류 및 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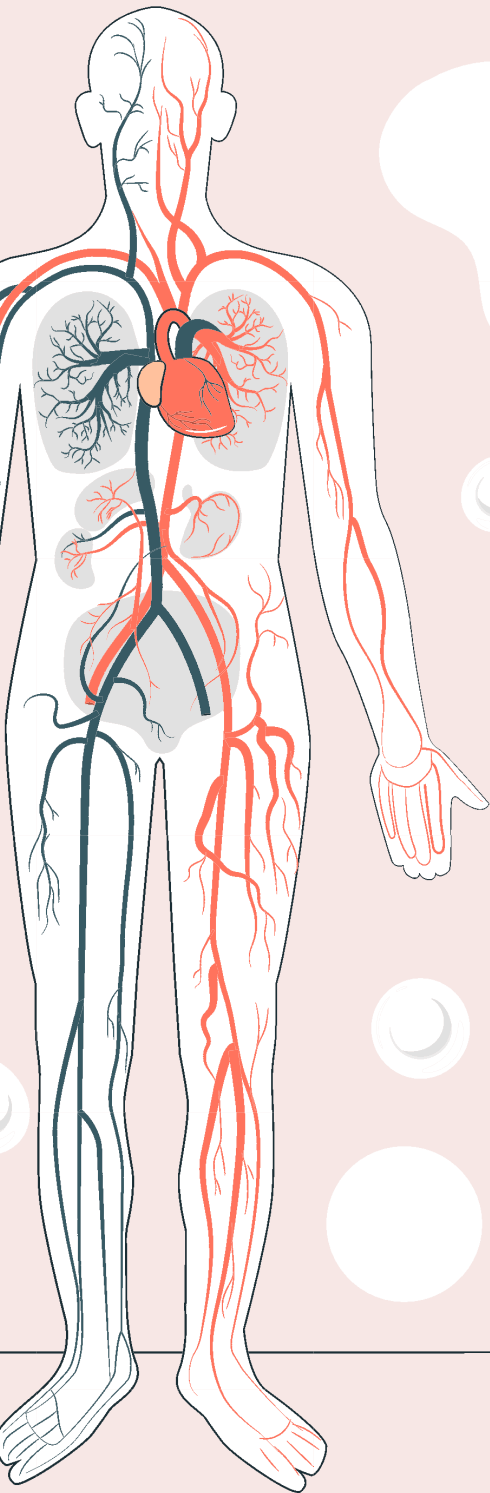
■ 심장질환

- 심근경색증, 협심증, 심부전증 등

■ 뇌혈관질환

- 뇌경색과 뇌출혈 등 이들 모두 고혈압 · 당뇨병 · 이상지질혈증 등 대사성질환이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대사성질환?

“대사성질환이 있으면 혈관에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이 축적되면서 혈관이 좁아지고 염증이 생기는데, 이를 방치하면 혈관벽이 터져 사망에 이르는 심각한 상태가 될 수 있다.”, “특히 지난해 발생한 코로나 사망자 대부분이 당뇨와 고혈압 등 기저질환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최규영 (양지병원 순환기내과 전문의)-

※ 고혈압 및 각종 대사성질환들은 혈관 내 염증 수치를 증가시키고 세포 대사 과정에 문제를 일으키는 등 합병증을 동반하기 때문에 건강검진을 통해 질병을 초기에 진단하고 치료하는 예방관리가 중요하다는 뜻

혈관질환의 위험성

대표적인 혈관질환 뇌경색과 뇌출혈은 어떻게 다르고 어떤 증상일까요?

■ 뇌경색

- 뇌혈관이 막혀 일부 뇌가 손상

■ 뇌졸중

- 뇌혈관이 파열돼 생기는 뇌출혈

※ 뇌경색이 약 85%로 뇌출혈보다 많습니다.



고혈압 환자라면?

혈압이 아주 높은 경우에는 과도한 음주나 심한 스트레스도 뇌졸중이 생길 수 있고, 갑작스럽게 추운 곳에 노출되거나 심한 운동과 탈수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뇌졸중 전조증상이 나타나면 가까운 사람에게 즉시 도움을 요청해 최대한 빨리 치료해야 한다.”, “급성 뇌경색은 골든타임에 뇌혈관중재술 등 응급 치료를 받아야 마비나 언어장애 등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다.”

-정인영(양지병원 신경과 전문의)-

뇌졸중 전조증상

- ☑ 말이 갑자기 어눌해짐
- ☑ 팔과 다리에 편측마비
- ☑ 갑작스러운 의식장애나 복시 등 시야장애
- ☑ 보행장애와 어지럼증, 균형장애, 원인 불명의 통증 등

편측마비와 의식장애 증상은 바로 응급실을 찾아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경우가 많지만, 비교적 경미한 두통과 어지럼증은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조증상이 생기면

뇌졸중예방과 선제적치료를 위해 MRI검사 등 반드시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내 몸이 내는 작은 소리, 결코 무심해서는 안 될 이유입니다.





10여년만에 바뀐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9대 생활수칙

심뇌혈관질환,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수칙을 지켜 건강한 생활습관 만드세요!

담배를 피우지 않습니다.	술은 가급적 마시지 않습니다.	적당량 음식을 규칙적으로 골고루 섭취합니다. *동곡물, 채소, 콩, 생선
규칙적으로 매일 30분 이상 운동하고, 오래 앉아서 생활하는 시간을 줄입니다.	적정한 체중과 허리둘레를 유지합니다.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생활합니다.
정기적으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측정합니다.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환자는 적절한 관리와 치료를 받습니다. *생활습관개선, 약물치료	뇌졸중, 심근경색증의 응급증상을 미리 알아두고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119를 부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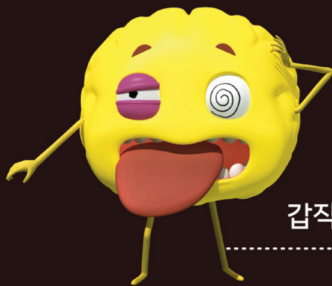
심근경색증, 뇌졸중?

**혹시 말고
즉시 119**

심근경색증, 뇌졸중 응급증상!
미리 알고 발생하면 즉시 119로
최대한 빨리 가까운 큰 병원에!



뇌졸중 초기증상



한쪽마비
갑작스런 시야장애

갑작스런 언어장애
심한두통, 어지러움



심근경색증 초기증상



갑작스런 가슴통증
식은땀, 호흡곤란

구토, 현기증
통증확산



새롭게 달라지는 2023 ‘보건·복지’ 이렇게 달라집니다

“미래 도약을 위한 튼실한 복지국가”

2023년 더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를 확대하고, 생명·건강 지키는 필수의료 강화, 연금개혁 등 지속가능한 복지개혁 추진을 위한 보다 나은 미래 준비를 위해 촘촘한 위기가구 발굴과 신속하고 두터운 약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복잡한 제도의 통합·정비와 사회서비스 고도화 등 복지개혁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보건복지부는 밝혔다.

- 1 기초생활보장 급여 확대 및 재산기준 완화
- 2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 단가 인상 지원
- 3 장애수당 단가 인상
- 4 노인성 질환 65세 미만 장애인의 활동지원 신청 허용
- 5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지원 강화
- 6 부모급여 도입
- 7 재난적 의료비 지원 문턱 낮추고 모든 질환 확대
- 8 자살 고위험군 지원 확대 및 인프라 강화
- 9 정신의료기관 환경개선 사업 추진
- 10 지역 의료-돌봄 연계체계 강화 시범사업 실시
- 11 사회서비스 혁신 기반 조성
- 12 발달장애인과 장애아동 돌봄서비스 확대
- 13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및 종사자 확대
- 14 사회서비스형·민간형 노인일자리 확대 실시
- 15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 보관·발급시스템 도입
- 16 암생존자 중심의 맞춤형 헬스케어 연구개발사업 실시

- 17 민관협력 자살예방 사업 확대
- 18 감염병 팬데믹 대응을 위한 비대면 진료기술 개발
- 19 신·변종 감염병 대유행 대비 항바이러스 치료제 개발 사업 추진
- 20 세포기반인공혈액제조 및 실증 플랫폼 기술 개발 사업(R&D) 지원
- 21 이종장기연구개발사업(R&D) 지원

기초생활보장 급여 확대 및 재산기준 완화

2023년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액이 확대되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재산기준이 완화되며, 재산기준 완화를 통해 35,000여 가구가 생계급여를, 13,000여 가구가 의료급여를 새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분	기존	변경
생계급여액 (4인가구 기준 최대)	154만원	162만원
지역 구분 방식	3급지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4급지 (서울/경기 광역·세종· 창원/기타)
기본재산공제액	생계급여 3,500~6,900만원 의료급여 2,900~5,400만원	5,300~9,900만원
주거용재산 한도액	생계급여 5,200~12,000만원 의료급여 3,800~10,000만원	11,200만원~17,200만원

문의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044-202-3054), 기초의료보장과(044-202-3094)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 단가 인상 지원

긴급복지지원은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가 곤란한 가구를 신속히 지원하는 사업이며, 4인가구 기준 `22년 하반기 대비 5.47% 인상된 생계지원금을 지급하게 되며, `22.7.1부터 시행된 주거용재산 공제 및 생활준비금공제율의 인상된 기준이 지속적으로 시행됩니다.

생계지원금 단가 인상

| 현행 |

1인가구 : 583,400원

4인가구 : 1,536,300원

| 변경 |

1인가구 : 623,300원

4인가구 : 1,620,200원

재산산정 시 완화기준 지속 운영

주거용 재산 공제 한도액(대도시 69백만원, 중소도시 42백만원, 농어촌 35백만원), 생활준비금 공제율(기준중위소득 100%)

문의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044-202-3058)

장애수당 단가 인상

2015년 이후 유지되었던 장애수당 단가(재가 월4만원, 시설 월2만원)가 2023년에는 50%인상(재가 월6만원, 시설 3만원)을 통해 '23년 총 41만명의 만 18세 이상 경증 장애인의 소득보장이 확대됩니다. 또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주소지와 관계 없이 읍·면·동에서 장애(아동)수당 신청이 가능하므로, 신청자분들의 편의가 더욱 증진되었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044-202-3323)

노인성 질환 65세 미만 장애인의 활동지원 신청 허용

장애인이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노인성 질환을 겪어 노인에 해당하는 분들에 대해 보다 촘촘한 장애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장기요양보험을 이용하는 65세 미만의 장애인도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지원대상자가 확대되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044-202-3344)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및 종사자 확대

노인 인구의 급속한 증가에 대응하여 혼자 힘으로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 대한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을 확대합니다.

지원대상 : 65세 이상 기초수급자·차상위·기초연금수급자 중 독거·조손가구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정책
비전

한눈에 보는 2023년 주요 업무추진 방향

위기에서 일상으로
안전하게 건강하게정책
목표

- ☑ 코로나19의 안정적 통제로 건강한 일상 회복
- ☑ 선제적 공중보건 위협 대비로 국민 안심 사회 구현
- ☑ 근거기반 질병 예방·관리 강화로 국민 건강 보호

현안
과제

1 코로나19 안정적 관리로
국민의 일상회복을
지원하겠습니다.



- ① 코로나19 관리 및 고위험군 보호 집중
- ② 중국발 코로나19 리스크 관리 철저
- ③ 근거 기반 대응을 위한 임무 중심 연구 강화

2 글로벌 보건의료협력을
선도하겠습니다.



- ① 글로벌 보건의료 선도기관으로 위상 확립
- ② 국제 네트워크 확대로 보건의료 협력 주도

1 미래 팬데믹에 대비한
국가 감염병
대응체계를
고도화하겠습니다.



- ① 신종감염병 조기 인지를 위한 감시·분석
- ② 미지의 감염병(Disease X) 대응 진단·역학 역량 강화
- ③ 대응체계 개편 및 접종 역량 강화
- ④ 미지의 감염병(Disease X) 대응,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등 제도 정비

2 상시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로
일상 속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겠습니다.



- ① 국가 예방접종 확대
- ② 상시감염병 관리 및 퇴치 전략 마련
- ③ 잠재적 위험요인 관리 강화
- ④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으로 의료 감염 감소

3 고령화 및 미래 건강위협 대비
국민 건강보호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 ① 만성질환 예방관리 체계 강화
- ② 희귀질환자 지원 확대 및 인프라 강화
- ③ 건강위해 예방·관리를 위한 안전망 구축

4 보건의료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R&D를 주도하겠습니다.



- ① 백신·치료제 핵심 기술 확보
- ② 미래의료 기술 선점을 위한 인프라 강화
- ③ 보건의료 R&D 지원체계 강화

핵심
과제

2023.2.3.

질병관리청

호흡기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슬기로운 환기수칙



창문을 활용한 자연환기 방법



하루 최소 3회, 매회 10분 이상
맞통풍이 가능하도록 환기



냉·난방기 가동 중에도
자연환기는 필요



선풍기, 환풍기를
동시 활용하면 환기 효과 증가

환기장치 등 기계환기 방법



환기장치는 외부 공기가
유입될 수 있게 최대한 하고,
내부 순환모드는 자제



건물 내 층간 확산 방지를 위해
화장실 배기팬 상시 가동



공기청정기를 같이 사용하면
오염물질 제거에 보조적인 효과

공기청정기의 올바른 사용방법

- ✓ 공기청정기가 있더라도 주기적으로 일정 시간의 환기는 필요
- ✓ 제품에 표시된 적용 면적을 확인하여 대상 공간에 맞는 용량의 공기청정기 사용
* 다중이용시설에서는 기준용량 대비 1.5배 이상의 용량을 선택하는 것을 권장
- ✓ 공기청정기 필터는 주기적으로 교체
일반적으로 집진필터(헤파필터)는 6개월~1년 사이에 교체,
제조사 교체 주기 및 필터 오염상태에 따라 변경



실내 환기 생활화로 호흡기 감염병을 예방해요!

실내 마스크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7판)

어디에서 반드시 써야 하나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시설

- ▶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의료기관, 약국, 대중교통수단(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 등)

OX로 보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지하철역, 기차역 또는 버스터미널	지하철, 기차, 버스 안	전세버스, 통근버스, 학교나 유치원 통학버스	쇼핑몰	쇼핑몰 안에 있는 병원	직장	카페, 식당
×	○	○	×	○	×	×

※ 직장과 카페, 식당의 경우, 각 기업과 시설의 자율적 방침 마련 가능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상황

- ▶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의심 증상)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 ▶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고위험군) 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 ▶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 ▶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접·밀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 ▶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합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 권고사항이므로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음

한센인에게 사랑과 희망을...

한국한센총연합회의 후원자가 되실 분을 찾습니다!

후원자 여러분들이 베풀어주신
사랑과 격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언제나 한센인과 함께하는 따뜻한 사회,
소통하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기부금 지정 단체인
한국한센총연합회가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 ♣ 후원방법 : 계좌 송금 및 물품 기부를 위한 문의 또는 홈페이지 접수
- ♣ 후원기간 : 상시
- ♣ 후원계좌 : 국민은행 433401-01-330682 (사)한국한센총연합회

Q. 후원관련 문의는 어디에 하나요?

A. Tel . 02-1566-2339로 연락주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Q. 후원접수는 어떻게 하나요?

A. www.hansenkorea.org에서 접수 가능합니다.

Q. 카카오톡으로도 문의 가능한가요?

A.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추가 후 채팅으로 문의주시면 됩니다.
(카카오톡 아이디 : 한국한센총연합회)

재야의 명저 《세이노의 가르침》 2023년판 정식 출간!



순자산 천억 원대 자산가,
세이노의 ‘요즘 생각’을 만나다

피보다 진하게 살아라!

이 책은 부자 되는 법을 가르치는 책이 아니다. 목차를 훑어보자. 재테크 기법 같은 것은 전혀 나오지 않는다. 이 책의 저자는 돈이 삶의 우열을 결정하지 않는다고 설파한다. 대신,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고민을 나눈다. 스스로의 인생을 위해 삶의 자세부터 바로잡고, ‘피보다 진하게 살라’ 한다. 세이노 사전에서 ‘노력’이란, 힘들고 어려운 일일수록 치열하게 열심히 해내는 것이다. 하기 싫었던 일조차 좋아질 만큼!

돈에 기죽지 마라!

저자는 돈에 대해서는 물론, 직접 겪은 자만이 알 수 있는 가난과 부의 실체에 대해서도 숨김없이 털어놓는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이 사회에서 돈은 마치 ‘피’와 같다. 피가 우리 몸 전체를 순환하며 생명을 유지시키듯, 돈은 돌고 돌아야 한다. 그래서 저자는 피가 부족한 이를 위해 피를 나누듯 이 책을 썼다. 이 책을 읽는 이들이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혜를 수혈받길 바란다. 그리하여 어디의 누구든 어떤 이유로든, 살아가면서 소중한 걸 포기하지 않는 세상이 되기를 꿈꾼다. 돈보다 소중한 것이 너무도 많으니까.

우리들의 배우 김혜자의 연기, 인생 《생에 감사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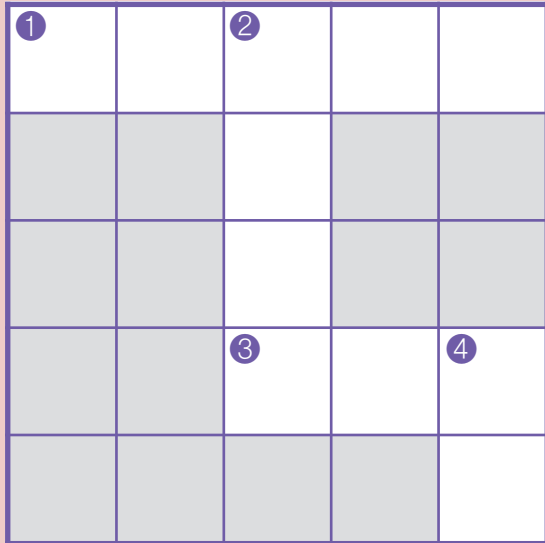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에 감사해”

한국을 대표하는 연기자, 우리가 사랑하는 배우 김혜자. 그녀는 지난 60년간 수많은 배역으로 살며 삶의 모순과 고통, 환희와 기쁨을 전했다. 배역을 맡으면 온전히 ‘그 사람’이 되어야만 했고, 그렇게 되기 위해 수십, 수백 번 몸부림치며 연기했다. 죽기 살기로 하면 그 뒤는 신이 책임져 주시리라는 믿음으로, 연기 잘 한다는 평가를 최고의 선물이라 여기며 몰입했다. 언제나 편안한 이미지로 다가오는 배우이지만 그녀의 삶 이면에는 그토록 치열한 시간과 감사의 기도가 함께 했다.

매번 작품을 할 때마다 그것이 자신의 ‘마지막 작품’이라고 여기는 배우, 작품을 선택할 때 비록 현실이 고통스럽고 절망적이어더라도 그 사이에 바늘귀만 한 희망의 빛이 보이는가를 기준으로 삼는 배우, 자신은 죽음을 생각하지만 절망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작품만을 선택하는 배우, 김혜자. 이 책은 그녀의 연기 인생에 대한 자전적 기록이며, 몰입과 열정, 감사와 기쁨, 그리고 ‘국민 배우’, ‘국민 엄마’라는 명성 이면의 불가해한 허무와 슬픔에 대한 생의 무대 위 고백이다. 그녀에 대해 잘 알든 모르든, 글을 다 읽고 마지막 책장을 덮으면 ‘김혜자는 역시 김혜자’라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뭉클해진다.

독자들의 공간



지난호 정답



참여방법

우편, 이메일, 총연합회 카카오톡으로 정답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하여 소정의 기념품을 보내드립니다.

◆ 우편주소 :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 457, 아이리스빌딩 2층 (사)한국한센총연합회 한센지 담당자 앞

◆ 메일주소 : hansen@hansenkorea.org

◆ 카카오톡 : '한국한센총연합회'로 검색 및 채널 추가 후 정답 전송

◆ 보내실 내용 : 성함, 주소, 휴대폰 번호, 정답(정답이 기재된 사진 또는 종이)

◆ 문의전화 : 02)1566-2339

가로세로 낱말 퀴즈

가로문제

- ① 한센인(병)에 대한 대국민 의식 제고 및 국가한센사업을 홍보하고 한센인 간 친목 교류 및 화합의 장을 제공하는 총연합회의 '전국00000'
- ③ 총연합회는 한센인의 노후 준비를 기여하기위해, 건강과 장수 기원의 의미를 담아 '우리마을 행복000'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세로문제

- ② 한센인(병)에 대한 일반 국민이 가지고 있는 인식을 파악하며, 향후 정확한 정보 전달과 관련 법안 제정 및 효과적인 인식개선을 위한 통계자료 '일반국민 0000'
- ④ 전부터 해 내려오던 전례가 관습으로 굳어진 것

한센 게시판

한센인(병) 관련 유물을 찾습니다!

한센인피해사건 기념관 건립 · 운영 추진을 위해 아래와 같은 한센인 또는
한센병 관련 유물을 기증(서약)받고 있습니다.

한센인피해사건 관련 자료	한센시설(병원) 생활유품 또는 기록	한센가족 후원 또는 봉사 관련 자료
	한센가족 작품 (문학, 미술, 음악, 사진 등)	기타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료

한센인과 함께 만드는 종합정보소식지 '한센' 원고 모집 공고

■ 응모 대상 : 제한 없음

■ 응모 기간 : 상시 접수

■ 원고 내용 및 분야

- 한센인 관련 미담, 에피소드, 봉사 수기
- 한센인 관련 정책 · 학술 · 역사 자료
- 한센인 창작 또는 한센인 소재 문학
- 한센인 관련 다양한 분야의 칼럼
- : 시, 소설, 수필 등 제한 없음
- 기타 「한센」게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원고
- 한센인의 생활현장, 민원 등 지역 소식

■ 응모 방법

- 제출처 : 총연합회 「한센」 담당자
- 우편제출 :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457, 2층
- 팩스제출 : (02) 1566-2032
- 이메일제출 : hansen@hansenkorea.org
- 전화문의 : (02) 1566-2339

후원자가 되실 분을 찾습니다

사단법인 한국한센총연회는...

한센인의 인권회복 및 권익보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여 한센인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불식시키고 한센인의 사회적 수용을 촉구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 공익법인이며, 「법인세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입니다.

한센인에게 사랑과 희망을!

후원자 여러분들이 베풀어주신 사랑과 격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언제나 따뜻한 사회, 소통하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사)한국한센총연합회가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사)한국한센총연합회 후원회장 김정남

후원계좌 국민은행 433401-01-330682 한국한센총연합회

사단법인 한국한센총연합회 중앙회 및 지부 주소

지부명	전화	팩스	주소
중앙회	1566-2339	1566-2032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457, 2층
서울·중부지부	(02)532-6777	(02)532-905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19길 10-20(방배동 202호)
부산지부	(051)245-8207	(051)245-8206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 124번길 3
인천지부	(032)515-5501	(032)515-5504	인천광역시 부평구 서달로 298번길 62-3(청천동)
경기지부	(031)973-5329	(031)973-3178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총장로 11 402호
전북지부	(063)542-7822	(063)545-7820	전북 김제시 갈공길 21
광주·전남지부	(062)524-3485	(062)524-3484	광주광역시 북구 버들로 23 동방빌딩 3층
대구·경북지부	(054)971-8975	(054)977-8975	경북 칠곡군 동명면 금암4길 5
울산·경남지부	(055)584-4333	(055)584-4332	경남 함안군 군북면 방어산로 618

‘한센’ 편집 자문위원

위원장	우홍선(사무총장)
위원	박영립(법무법인 최앤박 대표변호사), 신재균(법무법인 서해 변호사), 옥춘광(작가)
기획	전희진

지구의 모든 아름다움을 담고 있는 안식처
에버그린사회복지센터에서 이제 평화로운 삶을 누리십시오.



에버그린사회복지센터에서는 고령한세인을 위한 노인 친화적 환경의
 무료 **노인의료복지시설**로서 『노인복지법』에 의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네트워크로 고령한세인의 정서와 문화 그리고 공감을 포괄할 수 있는
 전인적 관점의 사회통합을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건·복지 서비스 강화

사례관리
 인권개선운동
 재활·치료 프로그램



지역사회교류 활성화

지역사회 기여 실천
 보편적 협력기관 확대
 긍정적 환경마련



노후생활 안전보장

1:1 개별 서비스
 요양·보호·여가 지원
 안정적 생활환경



에버그린사회복지센터
 EVERGREEN WELFARE CENTER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성산2길 116-15 | TEL : 043) 241-1300 / FAX : 043) 241-1302
 E-mail : egwc1300@egwc.or.kr | 홈페이지 : http://www.egwc.or.kr

모든이에게 사랑과 소망을

HANSEN

한센 1·2월호

hri 한국한센총연합회



질병관리청